

8월의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1.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 한일 관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두 나라가 협력하고 함께 성장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내과의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베드로전서 5장 7절)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국인이 50회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큰돈인 50파운드를 하나님 사업에 바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조지 물러 고아원에 돈을 부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큰 고아원을 세우고, 아무에게도 돈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이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50파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빨리 조지 물러 고아원에 10파운드를 보내라'는 마음의 생각이 계속되어 수표에 10파운드를 적어서 조지 물러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조지 물러 고아원에서는 고아원에 후원한 사람들에게 후원금의 사용처를 보내주는데, 이 영국 신사에게도 사용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낸 10파운드를 어디에 썼는가 보았더니 거기에 조지 물러가 자신의 체험을 옆에 적어놓았습니다.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영국 신사가 보낸 10파운드가 아니었으면 조지 물러 고아원의 고아들은 완전히 굶기 기도를 할 수 밖에 없었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날 10파운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 하심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성자가 되어야만 응답해주시는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3년 미국 성회"



미국 필라델피아 벨리포지 컨벤션센터에서 200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21차 북미 케랄라이트 오순절대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각종 문제에 빠져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전과 꿈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기도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며, 성령은 기도에 응답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을 확실할 때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기도는 먼저 훈련이 필요 한데 집중적으로 해야 하며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했으며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성회 준비위원장 조지 매튜 목사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세계적 설교가이자 복음 전도자인 조용기 목사가 주강사로 초청에 응해줘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칼돈 인터스트리의 CEO인 마이클 칼돈 주니어 씨는 "성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 둘째 날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성령과 기도, 비

당시 성회는 북미 케랄라이트 오순절 협회(PCNAK)에서 주최 했었고 DCEM에서 주관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3년 스웨덴 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유럽컨퍼런스가 2013년 7월 24-25일 스웨덴 옘살라의 '생명의 말씀(Livets Ord)'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조용기 목사는 유럽 컨퍼런스의 주강사로 강대상에 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선포하고 절대긍정 절대희망의 복음을 전했다. 조 목사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 교회의 요아킴 룬드크비스트 담임목사가 스웨덴어로 통역했다.

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치유됐고 건강해졌고 실패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역사적인 존재로 이해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곁에 살아 계신다"고 역설했다.

조 목사가 생각 꿈 말 믿음의 4차원 영성에 대해 설명할 때는 노트에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집회를 마친 뒤 한국 취재진에게 찾아와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한 성도들도 적지 않았다. 인도에서 온 한 성도는 조 목사가 설립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

문하는 꿈을 갖게 됐다며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유럽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1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 조 목사는 7월 25일 한 차례 더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1977년 스칸디나비아 세미나를 시작으로 북유럽 복음 전파에 나섰으며, 94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72년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인도해 유럽 교회에 성령운동의 불을 지폈던 성회였다.

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이 바다에 몰아쳐서 파도를 높게 일게 하여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1. 말씀을 의지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풍랑을 바라보자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풍파에 부딪힌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을 찾아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인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가 사역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나이 드신 성도 한 분이 심방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심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사자 몇 마리, 굴로 들어오는 빛 줄기, 그리고 다니엘이 보이네요.” “더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눈은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순간 목사는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치기 위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자를 바라보면 두려움의 틈에 걸리고 말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

마음의 평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사람은 확증으로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하고 병이 나을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믿음으로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병에서 놓여나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마귀가 와서 옛 고통이 전부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감각의 풍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배후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의심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단호하게 시인하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은 감각을 이기지만 그러지 않고 감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귀의 울무에 다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판단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3.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

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성회를 할 때, 한 어머니가 젓먹이를 업고 나와 간증하는 것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신장염에 걸렸는데 얼굴이 부어서 눈도 뜨지 못하고 젓도 먹지 않고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물에 넣으면 아기가 까무러쳤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떼었고 자기가 봐도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기가 나올 것이라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성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신장염에 걸려서 대단히 위독한 상태에 있는 어린 아기가 참석했는데 그 아기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졌습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내일 아기가 깨끗하게 낫는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역사하셔서 바로 다음 날, 그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해진 아기를 업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도중에 터널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늪을 지나기도 하고 벼랑을 오르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지나가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 종국적으로 합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평안은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7월의 성회들”



1980년 7월 스웨덴성회



1993년 7월 동러시아 대성회

Table with 4 columns: 개최 일자, 성회 명, 개최 일자, 성회 명. Lists various international church events from 1979 to 1997.



2002년 7월 인도네시아 국제교회성장 세미나



2013년 7월 싱가포르 특별성회